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31.(수) 11:00 < 6.1.(목) 조간 > 배포 2023. 5. 31.(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동시에 잡는다

-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시 전력사용량 최대 64% 절감, 전국 시행 시 연간 2,270GWh 절감

- 유통업계와 '냉장고 문달기 사업' 성과 공유, 에너지절약 방안 논의

롯데마트는 2021년 3월부터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2%, 여름철에는 최대 63%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도 일부 매장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은 일부 매장 테스트 결과 최대 64%까지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국의 약 11만 개 매장의 50여 만 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270GWh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약 61만 6천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5. 31.(수)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소 유통협회 등과 함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식품매장의 '냉장고 문달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커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하며, 유통업계가 소비자 접근성이나 매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전은 유통업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이번 년도 약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을 1.5배로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동참하여 에너지도 절감하고 요금부담도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업계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경성 차관은 유통업계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준수, 합리적인 시설물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민경미 (044-203-51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1 현장 방문

○ 일시/장소 : '23. 5. 31(수) 14:00~14:20 /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 참석자 : 20명 내외
- (정부) 산업부 강경성 2차관, 에너지정책관 등
- (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편의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리테일, BGF 리테일
-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 (공공기관) 한전, 에너지공단

○ 주요내용 : 냉장고 문달기사업을 통한 식품매장 효율혁신 현장 행보

2 간 담 회

○ 일시/장소 : '23. 5. 31(수) 14:30~15:30 / 롯데호텔월드 내 회의장

○ 참석자 : 현장방문 참석자와 동일

○ 주요내용 : ❶ 업체별 냉장고 문달기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❷ 소상공인·중소 유통업계 에너지효율 지원방안
❸ 유통업계 여름철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3('03)	모두 발언	**산업부 2차관**
14:33~14:38('05)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한전
14:38~14:45('07)	유통업계 에너지효율화 지원방안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계획	에너지공단
14:45~15:15('30)	❶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❷여름철 에너지절약 추진 방안	참석업체
15:15~15:28('13)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등	참석자 전원
15:28~15:30('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